



재일교포 허미미, 태극기 달고 여자유도 금

할머니 유언 따라 韓 국적... 아시안게임 57kg급 우승
독립운동가 후손... “메달 들고 할머니 묘비 찾아갈 것”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재일교포 허미미(경북체육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허미미는 1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아리운자아 테르비시(몽골)를 엿어치기 유효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허미미는 경기 시작 12초 만에 엿어치기를 시도해 유효를 얻었다.

기선을 제압한 허미미는 이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를 압박했다.

이후 허미미는 특기인 원팔 엿어치기를 계속 시도하면서 기회를 엿봤다.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중반 이후로는 수비에 집중했고, 경기 종료 1분 10여초를 남기고 지도 1개를 받았다.

그러나 허미미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 경기 종료 20여 초 전 기습적인 엿어치기를 시도했다. 이후 누르기로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흘려보내 승리를 확정했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



어린 시절의 허미미.

연합뉴스

포 출신으로 2021년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할머니와 아버지 허부숙 씨를 따라 허미미는 한국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수로 한국 유도 역사의 새로 쓰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보인 허미미는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



1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kg급 4강. 한국 허미미가 우즈베키스탄 슈쿠르 존 아미노바를 상대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995년 여자 61kg급 정성숙, 여자 66kg급 조민선 이후 무려 29년 만에 한국 여자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처음 출전한 종합 국제대회였던 2024 파리 올림픽에선 결승에서 크리스티 데구치(캐나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미미는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꼭 금메달을 따서 할머니 묘비에 가져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애국가를 외우며 심기일전한 허미미는 1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목표를 이뤘다.

금메달을 목에 건 허미미는 이제 할머니 영전을 찾는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4연패 명운 가를 한일전

내일 오후7시30분 킥오프
3연속 AG 결승에서 격돌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4회 연속 금메달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속적’ 일본과 결승 무대에서 맞붙는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오후 7시3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2018 자카

르타·팔렘방 대회부터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격돌하게 됐다. 앞선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한국이 웃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결승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이승우와 황희찬의 연속골로 일본을 2-1로 꺾었고,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도 정우영과 조영욱의 득점포를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역시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단의 체력 조건만 놓고 보면 한국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일본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데 이어, 10번째 키커까지 나서는 피 말리는 승부차기(9-8 승) 끝에 극적으로 결승에 올라왔다.

결승전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피로 누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고, 한국과 달리 와일드카드(연령 초과 선수)도 발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알볼 수 없는 상대다. 이민성호는 올해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바로 이 U-21 주축의 일본 현 대표팀에 0-1로 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물론 당시와 비교하면 엄지성(스완지시티),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유럽과 핵심 자원들이 합류해 한국의 전력은 한층 탄탄해졌다.

다만 대회를 치르며 안개 된 부상 변수에 따른 ‘전력 누수’는 아쉬운 대목이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이상을 느낀 측면 공격수 양현준(셀틱)과 발 부위 염증이 생긴 중원의 핵심이자 주장 이기혁(강원)이 앞선 준결승전에 결장했다.

이들이 빠진 준결승전에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팽팽한 승부 끝에 후반 막판 터진 배준호의 극적인 골로 2-1 역전 진땀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다소 불안감을 남겼다.

연합뉴스

화이트삭스·양키스·샌디에이고, DS 진출

<다비전시리즈>

김하성 속한 애틀랜타 패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MLB) 가을야구 첫 시리즈를 통과했다.

화이트삭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다이킨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시리즈(WC·3전 2승제) 2차전에서 7-3으로 승리했다.

AL 와일드카드 3위로 포스트시즌(PS)에 턱걸이한 화이트삭스는 이로써 서부지구 1위인 휴스턴을 2승 무패로 꺾고 다비전시리즈(DS·5전 3승제)에 올랐다.

화이트삭스가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승리한 것은 2005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21년 만이다.

화이트삭스는 4일부터 중부지구 1위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ALDS에서 맞붙는다.

같은 아메리칸리그의 뉴욕 양키스는 라이벌 보스턴 레드삭스와 WC 2차전에서 9-2로 승리했다.

역시 2연승을 거둔 양키스는 보스턴을 따돌리고 다비전시리즈에 올랐다.

양키스는 다비전시리즈에서 지구 1위 탬파베이 레이스와 대결한다.

내셔널리그(NL)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시카고 컵스를 4-1로 꺾고 와일드카드시리즈를 2연승으로 이겼다.

샌디에이고는 다비전시리즈에서 중부지구 1위인 밀워키 브루어스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경쟁을 벌인다. 김하성(30)이 속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NL WC 2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4로 역전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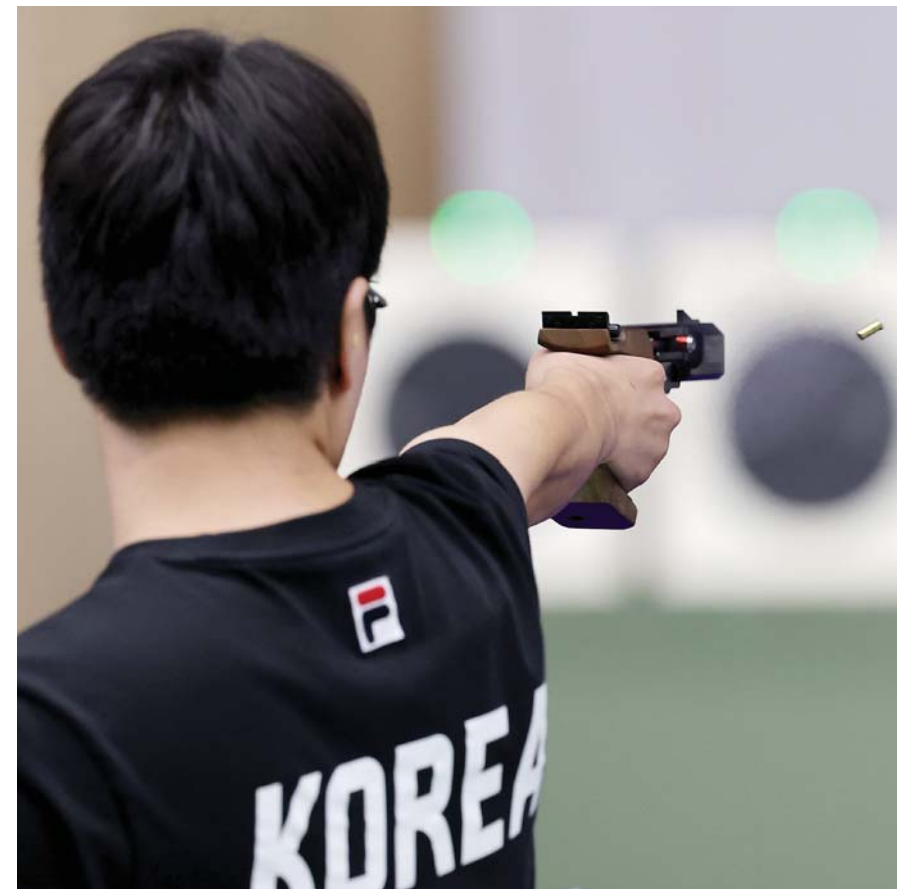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1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3회말 선두 타자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1-1인 7회말 무사 1루에서는 희생번트를 뒀으나 야수 선택으로 처리하면서 살아 나갔다. 김하성은 맏 올슨의 희생플라이로 득점까지 올렸다.

필라델피아는 1-3으로 뒤진 8회초 카일 슈워버와 브라이스 하퍼가 백투백 홈런을 날려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초 알렉스 봄이 솔로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승했다.

와일드카드시리즈 최종 3차전은 2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건혁, 금메달 꿰뚫은 탄환 이견혁은 1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차 쏠오프(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렌보판(중국)을 따돌리고 32점(쏠오프 합계 9점)으로 우승했다. 앞서 열린 본선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확보했던 이견혁은 개인전까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주차장형·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펜션·카페·식당·유치원
카센터·게스트하우스·교회·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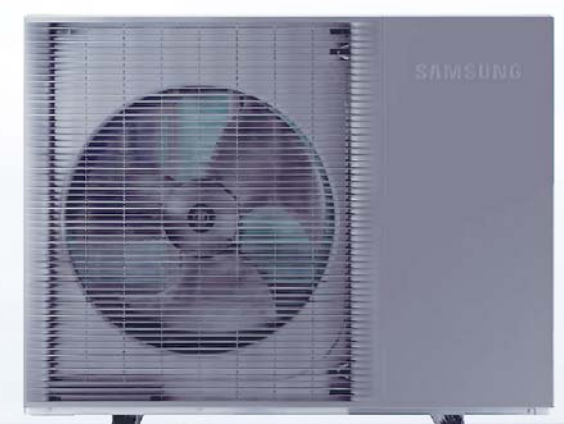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너지코리아(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